



ProPak China 2003에 다녀와서

9개 업체 한국판 구성, 반응 높아

김영순 /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부회장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파동으로 중국의 경기가 다소 주춤하는 듯 하고 세계의 경제가 혼돈한 가운데 중국은 2001년 11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 성공, 2010년 상하이 EXPO 개최 확정으로 탄력을 받은 듯 중국경제는 불황을 모르고 연간 7~8%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는 92년 이래 매년 평균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나타내어 2002년도 1인당 GDP 4,899달러로 중국내(중국전체 평균 964달러, 베이징 3355달러) 최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지 11년이 지나면서 양국간의 교역량이 급격히 늘고있어 작년대 중국 수출액은 237억5천만달러로 미국(327억8천만달러)에 이어 2번째를 나타내고있다.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난 92년에 비해 9배로 늘어난 것이다.

수출, 수입을 합친 교역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이다.

여기에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작년 수출액은 33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수출의 20.9%를 차지, 미국 20.1%보다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웃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동시에 가장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올려주고 있는 나라이다

대 중국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중국투자액은 약110억 달러에 이른다.

작년에만 17억2천만 달러를 투자, 전체 해외투자액의 34%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7월 노무현 대통령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 교역량과 투자는 더욱 강도를 더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연구소인 창청 기업전략연구소는 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제조업 생산량이 2년후 2005년에는 독일을 앞지르는데 이



◀ Propak China 한국포장기계협회 부스

어, 오는 2015년에는 일본,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7월 중국 상업도시이며 물류기지인 상해에서 개최예정이었던 본 전시회가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하여 개최 시기가 9월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한국포장기계협회는 KOTRA와 공동주최하고 IPR의 협조로 2003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중국 최대의 소비 시장인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9회 "ProPak China 2003"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총 9개 업체 144㎡(16부스)를 국가관으로 형성하여 참가하였다.

포장기계와 자재 그리고 각종 환경친화적 포장용기를 선 보임으로 한국 포장기계 산업의 진일보한 모습과 그 위상을 중국시장과 세계에 과시하고 우리 제품의 기술 노하우를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우리 포장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22개국 355개 업체 참가

"ProPak China 2003" 전시회는 총 전시면적 약11,000㎡, 22개국 355개 업체로 SARS로 인해 연기된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반으로 줄었다고는 하나 중국 포장기계 전시회로서는 작지 않은 규모의 전시회였으며 3일간의 총 관람객은 약 9,000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포장기계협회는 포장기계분야의 중국진출이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1998년 광저우 China Pack 전시회(12개사), 1999년 Packaging China 전시회(8개사), 2000년도 상하이 Packtech & Foodtech(10개사), 2001년도 상하이 ProPak China(19개사) 및 북경



◀ Propak China 한국관

China Foodtech(5개사)를 비롯하여 2002년도 북경China Pack & China Food(10개사)와 상하이 Packtech & Foodtech(10개사) 등 중국내에서 권위있는 포장전시회에 꾸준히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여한 바 있다.

또한 매년 북경과 상하이에서 각각 1회씩 국가관으로 참가한 결과 중국 포장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진출의 필연적인 결론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중국 시장 진출(기계 판매와 중국내 생산기지 거점확보)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하게 됐다.

2001년 4월 중국 베이징에 한국포장기계협회 베이징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지 직원이 포장기계 판매활동과 기술제휴 및 현지합작사 설립모색 등

중국 현지의 정보입수 및 사전 활동 거점을 확보한 바 있어 금년 개최된 본 "ProPak China 2003" 전시회는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참가하게 되었다.

외국기업 참가 큰 폭 향상

본 "ProPak China 2003" 전시회의 특징으로는 과거 우리 협회가 참가한 전시회에 비하여 중국을 제외한 외국 기업의 참가가 눈에 띄게 많았다는 것이다.

대략 전체 면적의 75%가 외국회사의 전시로 구성됐다.

한국을 비롯한 호주, 독일, 네델란드, 스위스, 홍콩, 남아프리카, 대만, 캐나다, 이태리, 싱가포르, 태국, 덴마크, 일본, 스페인, 영국, 핀란드, 스웨

덴, 미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22개국이 참가하여 Small Inter Pack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참관인들은 한국관의 기계와 환경친화적이고 사용 편리한 용기와 재료에 관심을 보임으로 진지한 상담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포장산업분야도 이제는 세계시장에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특히 중국인의 한국 포장산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일부 회사의 기계는 현지에서 상담되어 전부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소 아쉬웠던 것은 이처럼 판매된 기계가 높은 관세와 제비용이 너무 높아 현지 판매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3일간의 짧은 전시 기간 중 각 업체마다 자기 제품을 선보인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일본의 Shikoku사의 우유팩(1000ml) 시간당 12,000개의 초고속 충전시스템과 이태리 SYMPAK사의 시간당 27,000~30,000개 능력의 우유팩(500ml) 충전 시스템의 불꽃튀기는 경쟁은 가히 불만했다.

한국관 부스, 계약 및 구매 상담 현황

한편 한국관에는 (주)이생, (주)한국크리에타, (주)가보테크, 좋은포장기계, (주)대신기계, 세원포장기계, (주)디에스아이 등의 전시품이 관심을 끌었다.

특히 협회 홍보관에 카다록을 전시한 (주)세진테크의 홍보 효과도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모든 참가사들이 대리점 계약상담과 구매상담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적인 성과로서는 구매 상담액 2천만불과 현지 계약액 30만불의 실적을 올리고 귀국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KOTRA관과 한국포장기계협회관을 운용함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협회의 위상제고에 일익을 다하였다 특히 2004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COEX에서 개최될 제9회 KOREA PACK 2004의 홍보도 많은 중국인의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유형무형의 큰 성과는 우리 협회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5개지역 중 중국 지역에 대한 꾸준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는 1998년 광조우 전시회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이와 북경에서 개최되는 포장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한 행사로 중국시장의 관심과 지속적인 개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협회가 인터메세항공과 더불어 약 40명의 참관단과 참가단을 모집하는 등 총 80여명의 한국인이 이번 전시회를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으나 폭넓은 자료와 중국시장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끝으로 본전시회를 주최한 Hong Kong Exhibition Services Ltd.의 물 샅 틈없는 기획과 전시장 운영에 찬사를 보낸다.

덧붙여 KOTRA 상하이공관 직원의 헌신적인 전시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본 전시회 한국 Agency인 IPR의 현지 출장 직원의 세심하고도 적극적인 뒷받침은 성공적인 전시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첨언한다. ☺